

손창섭 소설의 매저키즘과 여성

김 주 리*

[초 록]

본고는 손창섭 소설에서 매저키즘적 관계가 가진 의미를 분석하고 구강적 모성 표상의 의미를 재고하고자 한다. 들뢰즈에 따르면 매저키즘적 관계란 유혹하는 ‘자궁의 어머니’와 처벌하는 ‘외디푸스적 어머니’의 양 극단을 오가는 ‘구강적 어머니’에게 모든 권리를 위임하는 계약이며, 매저키즘 관계에서 구강적 모성에 의해 굴욕과 조롱을 당하는 것은 매저키스트 내부에 숨어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이다. 피해자의 욕망에 의해 맺어진 가학과 피학의 계약관계로서 손창섭 소설 속 매저키즘은 『부부』, 『혈서』, 『피해자』 등에서 보듯 사회적 약자(장애인, 여성)가 학대자가 되고 강자(지식인, 남성)가 피해자가 되는 관계역전으로 나타난다. 『부부』와 『피해자』에서 정조와 현모양처 등 가부장제 윤리는 여성 학대자에 의해 과잉모방 됨으로써 아이러니와 유머를 가져온다. 여성 학대자는 『부부』, 『아들들』, 『인간교실』, 『이성연구』 등 1960년대 장편소설에서 유혹하고 처벌하고 돌보는 구강적 모성의 이미지로

* 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주제어: 손창섭, 매저키즘, 구강적 모성, 관계 역전, 과잉모방, 유혹과 돌봄
Son, Chang-seop, Masochism, Oral Maternity, Reversed Relation, Over-imitation,
Temptation and Taking Care

나타난다. 이들 소설에서 성적으로 분방하면서도 주위를 돌보고 적극적인 생활력을 갖춘 여성(구강적 모성)들은 유혹적인 동시에 자애로운 돌봄을 통해 가부장 사회의 윤리에 대한 파괴와 조롱, 교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1. 서론

손창섭이 1958년 『사상계』에 발표한 소설 「잉여인간」은 원장 서만기 씨를 비롯해 만기 치과의원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는 “한 사람은 비분강개파 채익준씨요, 다른 한 사람은 실의의 인간 천봉우씨”¹⁾ 등 세 명의 남성 지식인이 전후 재건 사회의 현실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그들에 얽혀드는 아내와 장모, 처제, 간호사 홍인숙 등 여성인물들의 욕망과 애정, 돌봄을 서사화하고 있다. 6.25 사변 당시 “피난 나갈 기회를 놓치고 적치 3개월을 꼬박 서울에 숨어 지낸”(94) 경험에서 오는 “공포감 때문에 잠시도 마음 놓고 깊이 잠들어본 적이 없다”(94)는 천봉우와, 가족의 생계조차 변변히 꾸리지 못하면서도 “남달리 정의감과 의분이 강한”(92) 까닭에 매사에 화만 내며 좌충우돌하는 채익준은 소설에서 다른 성격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전후의 현실에서 무능한 잉여인간들이다. 이들과 달리 “서양 사람처럼 후리후리한 키와 알맞은 몸집에 귀공자다운 해사한 면모를 빛내”(97)는 서만기는 친가와 “처가네 식구까지 열네 명이나 되는 대가족”(121)의 생계를 어렵게 꾸려가지만 “예의범절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을 뿐 아니라 미술, 음악, 문학을 비롯해서 무용, 스포츠, 영화에 이르기까지 깊은 이해와 고급한 감상안을 갖”(97)춘 교양 있는 “외유내강한 사내”(97)이자 “좋은 의미에서 영국풍의 신사”(98), 지식인 가부장으로 아내와 처제를 비롯해 모든 여성의 욕

1) 손창섭(2005), 「잉여인간」, 『손창섭 단편 전집』 2, 가람기획, p. 88.

망과 애정의 대상이다. 이때 교양 있고 윤리적인 가부장 서만기의 위상을 위협하는 것이 유혹하는 여성 봉우 처와 돌봄을 지향하는 여성 흥인숙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설에서 “경제활동이 비범”(95)하고 성적으로 “분방하기 이를 데 없는” 데다가 “친정에 가서도 도리어 오빠들보다 발언권이 강한 봉우 처는”(98) 교양 있는 가부장 서만기를 유혹하는 음험한 여성인 동시에 자신이 가진 경제력으로 서만기의 경제적 무능을 환기하고 그의 윤리를 조롱하는 여성이기도 하다.

지극히 인격이 고상하신 도학자님의 웅졸한 취미를 저는 구태여 방해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한편 저 같은 계집에게도 선생님같이 점잖은 분을 비웃을 권리나 자격이 어찌면 아주 없지도 않을 거예요. 삶을 대담하게 엔조이할 줄 아는 현대인 가운데 먼지 낀 샘플처럼 거의 폐물에 가까운 도금한 인간이 자기만족에 도취하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꼴을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자신이 바로 그러한 인간의 표본이예요.(125-126)

영국신사나 외유내강한 사내 같이 긍정적으로 서술되는 서만기는 봉우 처의 관점에서 보면 실상 천봉우나 채익준 못지않게 무능한 시대착오적 폐물일 뿐이다. 봉우 처의 관점에서 그는 윤리와 교양을 내세우는 자기 도취자일 뿐 삶의 욕망과 향유를 모르기에 도학자의 도금을 한 폐물에 가까운 먼지 낀 샘플일 따름이다. 작품에서 표면상 유능한 치과 의사로서 세련된 교양을 갖춘 지식인이지만 이면에서 십여 명의 대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와 윤리 가운데 허덕이는 무능한 가부장 서만기의 실상이 봉우 처의 시선에 의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다. 무능한 서만기가 부닥친 경제적 난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유분방한 봉우 처의 유혹에 몸을 맡기거나, 은근히 애정을 고백하며 “선생님께 병원을 차려드릴 일념으로 모아온 돈”(134)을 내놓는 간호사 흥인숙의 호의를 비는

방법밖에 없다. 즉 그는 봉우 처의 유혹이나 흥인숙의 돌봄을 통해서만 자신이 표면에 내세우는 교양과 도덕, 신사와 가장의 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봉우 처와 “아내의 애정을 보았고 은주의 열정을 느”(134)끼게 하는 자애롭고 지순한 흥인숙은 모두 서만기의 신사적 가면, 점잖고 교양 있는 가부장의 가면을 벗기고 유혹하는 존재로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²⁾ 그들은 교양과 윤리를 연행하는 가부장을 유혹하는 동시에 그의 무능한 이면을 폭로하고 비판한다. 손창섭 소설에서 남성을 유혹하고 그의 위선을 폭로함으로써 가부장제 질서와 윤리의 허위를 조롱하는 여성 인물의 재현이 가진 의미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들뢰즈는 ‘구강적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가부장제 사회 속 규율과 질서를 구축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매질을 가하는 매저키즘적 지배자 여성의 모습을 부각한다. 그에 따르면 매저키즘 관계란 창녀처럼 유혹하는 ‘자궁의 이미지를 가진 어머니’와 매질로 처벌하는 ‘외디푸스적 어머니’의 두 극단을 오가는 선한 제3의 어머니, 즉 ‘구강적 어머니’에게 모든 권리를 위임하는 계약이다. 피해자의 욕망에 의해 특정한 계약이 맺어지고 그에 따라 구강적 모성의 유혹과 매질이 수행되는 관계로서 매저키즘에서 지배자 여성(어머니)의 매질을 통해 처벌당하는 것은 피해자 남성(아들)의 내부에 존재하는 아버지(가부장)의 모습이다.³⁾ 본고는 손창섭 소

2) (어머니-여성과의 동일시를 통해) 결혼을 회피하고 자기모멸적 남성상을 나타내던 초기의 손창섭 소설이 「영여인간」을 기점으로 변화해 (아버지-남성과의 동맹을 통해) 긍정적 지식인 가부장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보는(조남현(2003), 「손창섭 소설의 의미매김」, 『손창섭 — 모멸과 연민의 이중주』, 새미, pp. 156-159; 배경렬(2006), 「손창섭 소설의 특질과 인물 성격」, 『현대문학이론연구』 28; 박찬효(2014),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남성의 존재론적 변환과 결혼의 회피/가정의 수호 양상」, 『상허학보』 42, pp. 385-387) 기존 연구에서는 서만기의 긍정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가운데 봉우 처와 흥인숙을 선악 이분법으로 나눈다. 그러나 본고는 두 여성이 가부장으로서 서만기의 무능을 드러내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본다.

3) 매저키스트의 경험은 계약에 의해 일정 기간 모든 권리가 주어진 여성(구강적 어머

설에서 매저키즘 관계의 재현을 분석하고 구강적 모성의 이미지를 가진 여성의 의미를 재고하고자 한다. 매저키즘의 관점에서 손창섭 소설을 해명하는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신의 희작」을 비롯한 자전적 소설에서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에 대한 욕망과 원한의 이중 감정이 자기모멸의 매저키즘과 여성에 대한 사디즘적 폭행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하는⁴⁾ 한편 들뢰즈의 매저키즘 논의를 바탕으로 「피해자」, 「혈서」, 「미해결의 장」 속 과장된 복종을 수행하는 인물의 기형성을 통한 법의 조롱과 전복이라는 측면을 밝힌⁵⁾ 바 있다. 본고는 이들 해석에 동의하는 한편 사회적 위계구조가 역전된 데서 오는 매저키즘 관계의 유머를 부각하고 선한 구강적 모성의 이미지가 손창섭 소설에서 가진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⁶⁾

2. 가부장제 관계의 역전과 처벌의 웃음

손창섭의 소설에는 동거자 및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가학과 피학의 폭력이 자주 나타난다. 가령 「유실몽」(1956)은 “매형은 때리기만 하고 누

니)과 남성(아들) 사이의 연대에 바탕을 둔다(들뢰즈(1996), 『매저키즘』, 이강훈 역, 인간사랑, pp. 70-74 참고).

- 4) 대표적 연구로는 이수형(2010), 「1950년대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죄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집』 41, 계명대 한국학 연구소; 박죽심(2013), 「손창섭의 자전적 성격의 소설에 나타난 의미 고찰」, 『어문논집』 53; 공중구(2009), 「손창섭 소설의 기원」, 『현대소설연구』 40 등이 있다.
- 5) 양소진(2006), 「손창섭 소설에서 마조히즘의 의미」, 『비교한국학연구』 14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 6) 홍주영은 손창섭 장편소설 『부부』와 『봉술량』, 『이성연구』 속 계약과 구강적 모성을 부계사회 전형성의 전복이라는 측면으로 밝힌 바 있는데(홍주영(2008), 「손창섭의 <부부>와 <봉술량>에 나타난 매저키즘 연구」, 『현대소설연구』 39; 홍주영(2015), 「<부부>, <이성연구>를 통해 본 손창섭 장편소설의 여섯 가지 특징과 그 의미」, 『작가세계』 27), 본고는 구강적 모성의 성격에 있어 이들 연구와 견해를 달리하는 동시에 구강적 모성으로서 여성상이 60년대 장편에 한정된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맞기만 하게 마련”인 “누이와 매형 사이의 그 기이한 부부싸움”⁷⁾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한다. 그들의 부부싸움은 “마치 복싱 연습이라도 하듯, 두 주먹을 눈앞에 겨누었다가 연거푸 아내의 어깨와 등을 내리 족치는” 매형의 “아내를 구타하는 데 상당히 숙달된 솜씨”(242)를 보여주는 동시에 폭력의 피해자인 누이가 “재빨리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처박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은 채 꼼짝하지 않”고서 “참말 비명으로 듣기에는 너무나 느리고 부드러운 발음”(242-243)으로 “유창한 비명을 지르는”(242) 가운데 목격자인 ‘나’조차 “그만 실없이 웃어버리고 말”(243) 뿐인 유머러스하고 ‘기이한’ 장면으로 그려진다.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가혹한 육체적 폭행을 서술자가 범죄의 음침함으로 연상하지 못하고 기이하고 ‘신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돈 요구를 거절하는 누이에게 매형이 “너 시나일 뭘루 아니, 좀 똬데 봐라”(244) 트집을 잡는 것으로 촉발되어 “여보, 돈 내가시오”(245)라는 누이의 한마디로 대변에 끝나는, 폭행의 예측가능하고 자동화된 과정과, 매형의 사정없는 폭행에도 “마치 아이들의 콧노래 비슷하게” “조금도 절박한 맛이 없”(245)는 누이의 음성이 주는 유희의 느낌 때문이다.

눈을 흘기며 하는 소리다. 그래도 얼굴에는 분노나 비애의 기색이 라곤 없었다. 애교를 띤 미소가 얄밟도록 물살처럼 번졌다. (중략)

“그러기에 첫마디에 성큼 내놨음 동지 괜히 매두 안 맞구……. 어디 예가 얼얼한가?”

상근은 흡족한 듯이 웃고 누이의 어깨를 만져주었다.(245)

누이와 매형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폭행은 쌍방 계약처럼 자동화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그들은 때리고 맞는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 성적인 만족까지 느끼는 듯하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진행

7) 손창섭(2005), 「유실몽」, 『손창섭 단편 전집』 1, 가람기획, p. 242.

되는 “기발한 스포츠의 한 게임”(246)으로서 누이와 매형 사이의 기이한 폭력은 서술자에게 “참말 현대식 가정 스포츠일지도 모른다. 스포츠가 아니라면 내가 언제나 태연히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을 것”(246)이라고 간주된다. 그런데 이 가학과 피학의 성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가해자인 매형이 아니라 피해자인 누이이다. 서술자에게 ‘강한 인간’으로 간주되는 것 역시 매형 상근이 아니라 누이이다.

누이는 술집 작부였다. 그러한 직업에 누이는 수재적이었다. 그 수재의 힘으로 몇 식구가 살아가고 있었다. 누이의 그 행동성은 강한 생활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중략) 누이에게서는 강한 인간의 냄새가 풍겼다.(247)

누이는 사업을 한답시고 돈만 뜯어가는 매형과 갓난아이에 무기력한 제대군인인 동생(나)까지 부양하는 강한 생활력을 가진 여성일 뿐 아니라 여러 남성과 어울려 노는 술집작부 일에 ‘수재적’인 유희하는 여성이다. 강한 생활능력을 보유한 ‘강한 인간’으로서 누이가 매형에게 매를 맞는 것은 그녀가 매를 맞고 싶기 때문이며 누이의 욕망과 ‘가정 스포츠’의 규칙에 의해 매형은 자동화된 동작으로 매질을 가할 따름이다. 선택권은 어디까지나 누이에게 주어지며 「유실몽」의 결말에서 보이는 것처럼 누이는 원한다면 언제라도 현재의 매형을 떠나 다른 남성에게 욕망을 옮겨 갈 수 있는 것이다.⁸⁾ 이처럼 피해자의 욕망에 의해 맺어진 가학과 피학의 계약관계로서 손창섭 소설 속 매저키즘은 피해자의 시점에서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의 부당함을 서술하는 표면적 서사와 함께 이면에서, 현

8) 최강민은 「유실몽」에서 누이와 매형의 결별이 표면적인 돈 문제 때문이 아니라 서로가 진짜 새디스트와 진짜 매저키스트가 되어 서로에게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다(최강민(1998),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폭력성」, 『어문논집』 26, p. 232). 그러나 누구의 성적 만족인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선택권은 매형이 아니라 누이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의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 속 약자인 가해자와 강자인 피해자라는 역전된 관계구도를 설정함으로써 그 폭력의 의미를 재고하게 한다.

「혈서」(1955)는 고학생 달수와 “다리 하나 없는 준석”이, “언제나 그 자리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⁹⁾ 창애와 함께 “충청남도 고향에서 면장을 지내는 꽤 부유한 집안의 장남”으로 “법대를 나와가지고 판검사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하에”(143) 서울로 유학 온 규홍의 자취방에 기숙하는 가운데 “영원히 일치점에 도달할 수 없는 괴이한 논전”을 저녁마다 되풀이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반복되는 그들의 논전은 끊임없이 달수를 모욕하는 준석과 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달수의 응답이 이어지다 최종에는 반드시 달수를 병역기피자로 몰아붙이는 준석의 음박으로 마무리되는 판에 박힌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멧덩구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거야, 그렇게 만만히 취직이 될 줄 알아? 하고 몰아세우는 것이었다. 이럴 때 달수의 얼굴은 그지 없이 난처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울음과 웃음이 반반씩 섞인 운명적인 표정인 것이다. 그러한 달수는 그래도, 너는 괜히 자꾸 나보구 화만 내, 하고는 애원하듯 준석을 바라보는 것이다. (중략) 그러고는, 너 같은 건 군대에 나가서 툭툭히 기압을 좀 받구 와야만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날마다 벌벌 떨면서 공연히 취직을 구해 싸다니지 말구 어서 군문에 자원 입대하라는 것이다. 군대에 나가기가 싫으면 기피자라는 것이다.(139-140)

끊임없이 반복되는 논전에서 학대받는 피해자 달수는 독학으로 대학을 졸업해 성공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융통성이 없고 무기력하다. “손톱만한 희망도 거는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찾아다니며 중얼거리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151) 마치 거절당하기 위해 구직운동을 하

9) 손창섭, 「혈서」, 『전집』 1, p. 138.

는 듯한 달수의 모습은 병역기피자의 모욕을 받기 위해 끝없는 논전을 계속하는 듯한 모습과 겹쳐지면서 자기모멸의 욕망을 드러낸다. 그런데 학대받는 피해자인 달수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부잣집 아들이자 대학생 규홍이 아니라 장애인 준석과 간질병 환자 창애라는 사실은 문제적이다.

그러한 달수에게는 준석이 살아 있다는 것은 더욱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152)

그러한 창애에게서 달수는 공포를 느끼는 일이 있는 것이었다. 어쩌다 창애와 단둘이 마주 앉아 있게 되는 경우, 마치 유명이나 귀신을 대한 것 같은 엉뚱한 착각을 달수는 일으키는 것이었다.(147)

달수는 자신에게 군 기피자라고 모욕하는 장애인 준석과 간질환자 창애에게 공포를 느낀다. 달수가 두려워하는 그들은 ‘살아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는’ 병자이며 전쟁장애인으로서 죽음을 상기시키는 약자들이다. 병자나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가 역으로 대학생이라는 사회적 강자 규홍이나 달수에게 자진입대나 결혼을 강요하는 것으로 처벌을 가한다는 것이 「혈서」에 나타나는 매저키즘적 관계구도이다.¹⁰⁾ 취직도 못하고 돈도 없지만 “군대에 나가기 전에 대학교 법과를 마치고 싶었고, 그 뒤에는 고시에 합격하여 판사나 검사가 되었다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려는 뚜렷한 희망조차 품고 있는”(153) 달수,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성공에 대한 욕망을 품은 대상에 대해 음박지르고 조롱하는 준석은 그가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역전을 나타낸다. 달수의 욕망은 규홍의 부친이 규홍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며 당대의 사회질서에서

10) 양소진은 「혈서」와 「피해자」를 분석하며 피해자 달수나 병준의 과장된 복종이 가진 의미만을 매저키즘의 양상으로 분석하는데(양소진(2006), pp. 172-177), 본고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고 있는가의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에게 복종하는 정상인, 여성을 두려워하는 남성이라는 전복의 측면이 매저키즘적 웃음이 가진 가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구축된 질서이기도 하기에 이러한 욕망을 품은 달수와 그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부르주아 지식인 규홍에게 사회적 약자인 준석과 창애가 자원입대와 결혼을 강요하는 매저키즘적 관계구도는 자본주의 사회 질서에 대한 비판과 처벌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달수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결말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지배 질서에 대한 비판과 교정의 매저키즘적 폭력(처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말에서 장애인 준석은 규홍에게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간질환자 창애와의 결혼을 강요하는 동시에 이에 반대하는 달수에게 “내가 참말루 국적이 안 될래문, 당장 이 자리에서 혈서를 써라. 자원입대라구 혈서를 쓰”(160)라고 강요하는데 이러한 요구 앞에서 달수나 규홍은 저항하지 못한 채 웃음만 짓거나 “죽은 사람처럼 눈을 감으며, 할 수 없다는 듯이 검지를 가만히 내밀”(160)어 절단, 즉 거세되고 만다. 손가락 절단과 간질환자와의 결혼은 현실 사회 질서와 권력에 대한 거세이며 처벌의 폭력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손창섭 소설에서 매저키즘은 현실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 속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위계구도를 역전하는 방식으로 서사화된다. 1955년 『신태양』에 발표된 단편소설 「피해자」는 “장인과 여편네와 의붓자식인 대갈장군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기계가 되고 만”¹¹⁾ 중년남성 병준의 고난과 죽음을 아이러니와 유머로 서술하고 있다. 장애인(애꾸눈) 장인의 일방적 강요와 아내의 미모에 현혹당해 “40년간의 독신을 청산하게 된”(121) 그는 그들 앞에서 “취조 받는 범인처럼 무릎을 모으고 앉아서 대답이 자꾸만 헛갈리고 음성이 떨렸던”(122) “첫날부터 완전히 지배당하고 만”(122)다. 아내는 세 번째 결혼으로 앞선 두 결혼에서 대갈장군과 옥례라는 계집애까지 데리고 오는데, 그럼에도 병준은 아내와 장인 앞에서 전혀 기를 펴지 못한다.

11) 손창섭, 「피해자」, 『전집』 1, p. 121.

병준은 마침내 죄나 저지른 것처럼, 이 애를 우리가 아주 데리고 살아야 하느냐고 아내에게 조심히 물었다. (중략) 순실은 얼굴이 담박 노기로 붉어졌다. 눈썹이 곤두섰다. (중략) 만일 당신에게 전실 자식이 있다면, 나는 당신처럼 냉정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내가 낳은 자식보다 도리어 더 소중하게 키우겠노라는 것이다. 그 말이 과연 옳다고 병준은 시인했다.(124-125)

“암만해도 가정을 꾸려나갈 자신이 서지”(123) 앓는 소극적인 병준은 아내의 명령과 분노 앞에 꼼짝도 못하고 아내와 애꾸눈 장인이 자신에게 가하는 온갖 폭력과 박해를 받아들인다. 그런데 아내가 병준에게 가하는 폭력, 즉 의붓자식을 자기자식처럼 사랑하고 부양해야 한다는 요구는 사실상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가하는 윤리적 명령이기도 하기에 문제적이다. 아내는 남성 가부장제 사회의 윤리, 즉 재혼한 남성에게 전실 자식이 있을 경우 후처가 전실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길러야 한다는 가부장제의 윤리를 그대로 모방해 남편 역시 아내의 전실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길러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러한 가부장제 윤리는 남편과 아내, 지배와 피지배의 구도가 뒤집어지는 순간 웃음을 자아낸다. 가부장제 사회 속 남편이 아내에게 현모양처를 강요하며 불가능한 의붓자식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렇지 못할 경우 악녀라는 이름을 붙이고 처벌하는 것처럼¹²⁾, 「피해자」의 아내는 가부장제의 윤리를 모방해 남편에게 현부양부(賢父良夫)를 강요하며 불가능한 의붓자식에 대한 사랑과 가족 부양을 요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무능한 남편으로 죽을 것을 선언한다. 이처럼 당당한 지배자 아내의 목소리 앞에서 남편은 “억울하게 팔시를 받고 있는 것같이 생각”(125)하면서도 반항하지 못하고 “여편네가 아무리 굴욕적인 언사로 공격을 퍼부어도 병준은 일언반구 대답할 자격이 없었

12) 근대 가부장제 사회 속 계모와 후처의 표상에 대해서는 김주리(2018), 「한국근대소설 속 스위트홈의 욕망과 계모의 표상」, 『구보학보』 18 참고.

다.”(125) 결국 “병준은 아내를 보며 자꾸만 용서해달라고”(136) 외치며 “모든 것을 단념한 듯이”(136) 숨을 거둔다. 생활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은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피해자」 속 장인과 아내의 목소리는, 계모로서 전실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면 죽어야 한다는 가부장제 사회의 윤리 서사를 과잉모방해서 아이러니로 보여준다. 이 가운데 소설에서 전 남편의 자식을 제 자식처럼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주인공 가부장에 대한 애꾸눈 장인과 아내의 킁박은 현실에서 자본주의 가부장제 사회 속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의 윤리에 대한 비판이자 조롱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매저키즘의 역전된 관계구도는 1962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장편소설 『부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부』는 부부관계의 계약을 통해 남편의 행동을 처벌하고 교정하는 유혹자 아내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은 「혈서」의 아내가 가부장제 사회의 계모 이데올로기를 과잉 모방해 남편에게 의붓자식에 대한 부양을 강요하는 것으로 아이러니한 유머를 보여주는 것처럼, 부부간 정조와 성관계의 점잖음이라는 가부장제 윤리를 과잉 모방한 아내의 언어를 통해 남편에 대한 처벌과 교정의 유머를 보여준다. 신혼 때부터 “아내는 몹시 몸을 사렸기 때문에” “부부 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십년의 결혼생활은 중산층 가부장 서술자 ‘나’에게 “여필종부(女必從夫)가 아니라 남필종부(男必從婦)격”¹³⁾으로 비하되는 피해자의 위치를 각인시킨다. 중산층 가부장인 ‘나’에게 아내의 애정 표현은 “내가 겨우 굶주리지 않을 정도로 배급 주듯”(18)하는 고통과 처벌로 간주되고, 아내의 육체와 애정에 대한 ‘나’의 갈구는 도덕적 규율과 계약으로 얽매인 채 원치 않는 금욕의 처벌로 이어진다.

13) 손창섭(1970), 『부부』, 『손창섭대표작전집』 2, 예문관, p. 17.

나의 약점이란, 약혼 시절에 아내와 강제로 육체적 관계를 가졌던 일입니다만, 나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본인이나 부모나가 모두 엄격해서 본인은 마치 괴한에게 능욕이라도 당한 것처럼 침식을 끊고 누워 있었고 (중략) 부부 사이라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애무라든가 애정의 표시조차도 아내는 불순하고 불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19-20)

‘나’에 대한 아내의 요구는 금욕과 점잖음의 강요로서 내가 저지른 강간에 대한 처벌로 주어지는데, 이러한 서사는 이광수(『재생』, 『그 여자의 일생』, 『흙』 등)나 김동인(『김연실전』, 『무능자의 안해』 등) 등 근대 자본주의 가부장제 남성의 서사가 정조를 잃은 여성이 창녀로서 타락해 남성을 유혹하고 윤리적 남성이 그녀를 구원하거나 처벌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관계와 상황의 역전에 따른 아이러니를 구현해 보인다. 아내는 남편이 천박하게 자신의 육체에만 관심을 두고 자신을 남편의 희롱을 받아야 할 육체 이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그에게 의도적으로 가혹한 계약을 강요한다. 소설에서 그들 부부 관계는 마치 혼육관과 죄수의 관계처럼 “애욕 본능의 표현에 있어서 내가 조금만 지나치거나 귀찮게 굴면 아내는 으레 이런 선고를 내리고”(22) 가혹한 처벌이 더해지는 식으로 그려진다.¹⁴⁾ 아내의 처벌이 가혹해질수록 남편은 역설적으로 아내가 정한 규율을 더 위반하고 더 가혹한 처벌을 당한다.

14) 『부부』는 부부계약이라는 측면이 매우 주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이는 손창섭의 장편소설에서 혈연적, 가부장적 가족관계에 대한 저항과 새로운 가족 구성의 계약이라는 서사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서는 홍주영(2007),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여성 비판의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보람(2018), 「1960년대 손창섭 소설의 가족 공동체 연구 — <부부>, <삼부녀>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1 참고.

가뜩이나 아내 앞에서는 말이 아닌 나의 인격만 더욱 손상될 뿐 아니라 아내의 성미나 인생관, 남녀관, 부부관으로 보아서 어떤 가혹한 조처가 나에게 내려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21)

그러한 통제를 가하면 가할수록 억압된 감정이 누적되어 부지불식간에 그 통제를 깨뜨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인 모양이라, 나도 아내의 지시를 엄수하느라고 무척 애를 쓰다가도 그만 깜빡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되면 으레 통제는 더욱 강화되게 마련인 것이다.(37)

‘나’는 선고와 처벌이 이어질수록 오히려 이를 위반하기 위한 책동을 부리고 아내가 점잖음을 명령하면 그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는 한편 규율을 위반하는 것으로 고통스러운 처벌을 연장하기를 반복한다. 이 가운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맺어지는 욕망과 처벌의 구도는 현실 가부장제의 위계를 역전하며 우스꽝스럽게 반복된다. “더할 나위없이 육감적이에요, 고흥적이에요, 선정적이기조차 한 미묘한 타입”(39)으로 “그 육체는 창부형의 극치를 타고난”(39), 현실 가부장제 사회에서 피지배자로서 욕망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아내는 소설에서 그 유혹적인 육체를 처벌도구로 휘두르고, 현실 가부장제 사회의 지배자이지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한 남편은 소설에서 아내의 처벌에 따라 욕망을 교정하고 아내의 부하로서 길들여진다. 『부부』에서 아내의 목소리는 현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윤리와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성윤리를 과잉모방한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점잖음이라는 가부장제 성윤리가 ‘창부형의 극치를 타고 난’ 아내에게서 발화됨으로써 아이러니와 유머를 자아내고 비판적 의미를 갖게 된다. 창부형 육체를 가진 아내가 휘두르는 가부장제 윤리의 채찍이라는 이율배반의 모순이 『부부』의 유머를 구성하고 있으며, 소설 속 ‘나’와 아내 사이에 맺어지는 금욕을 통한 처벌과 욕망의 계약은 현실 가부장제 사회의 가정 윤리에 대한 조롱이자 비판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부부』와 「피해자」에서 여성의 정조와 현모양처를 강요하는 현실 가부장제 사회의 윤리는 소설 속 여성 가해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전유해 과잉모방 함으로써 가해와 피해의 역전 속에서 유머를 자아낸다. 손창섭은 현실 가부장제 사회의 위계구도를 역전해 현실적 약자인 가해자와 강자인 피해자라는 매저키즘 관계를 서사화함으로써 약자(장애인/여성)의 현실 질서나 가부장제 윤리에 대한 과잉모방의 아이러니와, 그에 기반해 강자(지식인/남성)에 대한 폭력과 교정의 유머를 보여주는 것이다.

3. 구강적 모성의 유혹과 돌봄

「피해자」에서 무능력한 가부장 병준에 대한 가해자 아내의 위력은 사실 그녀가 가진 유혹의 힘에 기인한다. 그는 “장인과 여편네와 사장을 위해서만 자기는 있는 것 같다.”(130)며 우울해 하지만 그럼에도 “아내의 이불 속으로 슬그머니 기어들어갔다가는 무안만 당하고 밀려 나오”(130-131)기를 반복한다. 아내가 가진 유혹적인 힘은 남성들을 낚아 올리며 그녀는 병준 이후에도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 “첫째는 과부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고, 둘째는 용돈 좀 맘 놓고 풍성풍성 써보고 싶어서”(131) 또 다른 남성을 유혹하고 가부장제의 목소리를 모방해 그들을 괴롭히고 지배할 것이다. 이처럼 매저키즘 관계를 서사화하는 손창섭의 소설에서 지배자 여성은 유혹적인 힘을 발휘해 남성을 지배하고 교정하는 동시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설령 그 아이가 “무지하게 큰 머리를 우뚝 들고” “한밤중에 자지 않고 우두커니 앉아 있는 버릇이 있”(131)다고 하더라도 보호하고 양육하기를 잊지 않는다. 남성을 유혹해 폭력적으로 거세하는 동시에 가족을 돌보고 양육하는 구강적 모성 이미지의 여성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상은 「피해자」나 「조건부」, 「미해결의 장」 등 단편소설은 물론이고 1960년대에 발표한 다양한 장편소설에서도 발견된다. 먼저,

1957년 『문학예술』에 발표된 소설 「조건부」는 “현옥을 아내로 삼을 수 있다는 희망과 조건에서” “꼬박 5년 동안이나, 현옥이네 세 식구를 집안 처럼 돌보아온”¹⁵⁾ 남성 갑주의 욕망과 좌절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노총각 갑주는 5년 전 부산 피난지에서 “제법 처녀티가 자르르”(438) 흐르는 열여섯 살 현옥에게 반해 “현옥이가 나이 자라면 갑주로 사위를 삼겠다”(438) 현옥 모친의 언질을 조건부로 받아들여 그들 식구를 돌 보왔고 그 과정에서 “언제부터인가 현옥의 모친과 잠자리를 같이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439) 약점 때문에 결국 현옥 가족에게 온갖 모멸을 당하고 현옥에게 퇴짜를 맞으며 자살 기도까지 하게 된다. 자신은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현옥에게는 좋은 것만 주고 교육시켜왔던 그의 욕망은 자신을 어머니의 정부로서 모멸할 뿐 접근조차 허락하지 않은 현옥의 냉정한 태도 앞에서 좌절하고 그는 “자신의 억울한 심정이나 푸념”(440)을 하소연할 뿐 감히 현옥의 냉정에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현옥은 자신과 갑주의 관계가 “어떤 교환 조건에 의해서 구성되어 왔”(460)음을 냉정하게 지적한다. 즉 그것은 현옥 가족이 갑주에게 육체적 만족을 제공하고 갑주가 현옥 가족에게 물질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갑주의 물질적 원조와 실제로 교환된 것은 현옥의 미모와 육체가 아니라 현옥 어머니의 육체와 돌봄이다. 여기에서 계약을 둘러싼 갑주의 오해와 그로 인한 피해자로서의 울분이 생겨나는 것이다. 늙은 독신남으로서 갑주는 미모의 처녀 현옥에게 매혹되어 미래의 계약을 맺지만 실제로 그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현옥이 아니라 현옥 모친이기에 그 계약은 갑주에게 오해가 빚어낸 고통의 드라마가 된다.

“은 업체도 좋지! 그래 5년 동안이나 우리가 누워서 그냥 얻어먹구 지냈단 말요. 신열이 나구 오금이 쭈셔두 나는 잠시나마 편히 누울 새조차 없었소. (중략) 애들의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 10년간이나 곱게

15) 손창섭, 「조건부」, 『전집』 1, p. 438.

지켜온 내 몸뚱이를 당신의 요구대로 나는 마다 앓구 허락했어요. 나는 이만큼이나 자신을 돌보지 앓구 당신을 섬기구 집안일을 꾸려왔어요. 그런데두 불구하구 지금 와선 뭐라구요? 왜 현옥이와 결혼을 시켜주지 않느냐구. 5년 동안이나 돌봐준 은공을 왜 모르느냐구. 어디서 그런 염치없는 소리가 나온단 말요?”(441)

소설에서 현옥의 모친은 갑주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그를 조롱하고 억박지르는 동시에 돌보고 먹이고 유혹해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식까지 길러낸다. 피난지 부산이라는 생존의 한계에서 갑주와 육체거래에 기반한 계약을 맺음으로써 그녀는 생계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그를 자신의 육체로 유혹함으로써 자신의 딸에게 품은 불온한 욕망을 처벌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조건부」는 이처럼 특정한 조건부 상황, 즉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여성-가해자와 남성-피해자의 현실적 위계가 역전된 가해와 피해의 매저키즘을 서사화하는 가운데 현옥 모친과 같이, 욕망에 충실하지만 생활력 강하고 자신만의 윤리를 따라 주변을 돌보는 존재로서 구강적 모성을 형상화하는 것이다.¹⁶⁾

「잉여인간」 속 봉우 처와 흥인숙이 각각 유혹과 돌봄으로 도덕적인 가부장 서만기의 무능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¹⁷⁾ 「미해결의

16) 구강적 모성상이 유혹하는 자궁의 모성과 처벌하는 외디푸스적 모성의 양극단을 오가며 제3의 성격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 본고는 이를 돌봄의 자질로 해석한다. 홍주영은 손창섭의 『이성연구』 속 성욕이 많고 적극적인 계속, 결벽적이고 소극적인 신미의 성품 중간에 있는 선주를 구강적 모성으로 간주하는데(홍주영(2015), p. 40) 그러한 해석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구강적 모성이 가진, 유혹을 통한 가부장제에 대한 전복의 측면을 고려할 때 선주는 가부장 사회의 윤리에 충실한 인물로 보이며(김명임은 『이성연구』 속 선주의 행복이 순종적이고 인내하는 여성의 성공인 것처럼 손창섭 소설의 긍정적 여성형이 청순가련형의 여성이라고 본다. 김명임(2003), 「손창섭의 『이성연구』 — 체념의 미학과 통속적 기호들」, 『한국학연구』 12, p. 223) 욕망에 충실하지만 생활력 강하고 자신만의 윤리로 주변을 돌보는 계승을 구강적 모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17) 생활력 강한 청년 남녀에 의해 스승 고선생의 도덕적 위선을 고발하는 「설중행」

장」(1955)에서 무능한 가부장의 위선에 대한 조롱과 비판은 유혹하는 동시에 돌보는 여성의 표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생계조차 제대로 꾸려나가 지 못하면서도 미국 유학열에 들떠 있는 부친(대장)에게 ““죽어라, 죽어!” 소리 뒤에는, 고무장갑 같은 대장의 손이 내 따귀를 갈기는 것이 거의 공식화 되어 있”(165)는 ‘나’의 생활에서 “나 자신을 해결할 아무런 방도도 없이 하여튼 잠시나마 집을 나와”(169) 찾아가곤 하는 여대생 매춘부 광순은 여러 남성의 체액이 뻘 듯한 유혹적 향기와 눈부신 미소로 ‘나’를 유혹하는 동시에 재우고 먹이는 돌봄을 수행한다.¹⁸⁾

광순의 낮에서는 언제든 눈부신 미소가 사라질 적이 없다. 근심도 애수도, 그 미소의 바닥으로부터 흘러가버릴 뿐, 결코 그것을 지워버리

(56)이나 입으로는 양심과 윤리를 외치지만 무능하기만 한 스승의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제한」(56) 등도 비슷한 주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역사 단편소설 「청사에 빛나리」(68)에서도 황산벌 전투에 나서며 가족을 몰살하는 계백장군의 모습을 “나라와 백성의 운명보다도, 일신의 명예만을 더 생각하는 장군의 죽음이 소원대로 청사에 길이 빛나길 비오.”(손창섭, 「청사에 빛나리」, 『전집』 2, p. 372)라고 비꼬는 것으로, 남편의 가부장제 윤리를 방자한 무능을 폭로하는 아내 보미부인의 서사를 통해 위선을 폭로하고 있다.

- 18) 손창섭의 여성상에 대한 연구들은 피메일 콤플렉스에 기반한 왜곡된 여성상을 지적하며(공종구(2009), pp. 163-164 참조) 돌봄의 정신적 자질이 강조된 성녀형 인물과, 유혹의 육체적 자질이 강조된 탕녀(요부)형 인물로 이원화하고 초기의 탕녀형 여성상이 후기의 성녀형 여성상 중심으로 변해간다고 보면서 매춘부 여성 인물을 결혼에 대한 남성의 불안이 반영된 탕녀형 인물로 간주하는 양상을 보인다(대표적 연구로 전성욱(2010), 「전후의 현실과 섹슈얼리티 — 손창섭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17; 김명임(2003), 「손창섭의 『이성연구』 — 체념의 미학과 통속적 기호들」, 『한국학연구』 12; 공종구(2012), 「『삼부녀』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가족주의」, 『현대소설연구』 50; 김홍진(2014), 「손창섭 소설의 여성 하위주체의 위상」, 『국어문화』 56 등). 그러나 손창섭 소설에서 과연 전형적인 요부나 성녀가 나타나는지는 의문이다. 송주현은 손창섭 소설이 성녀/탕녀의 남성중심적 이분법을 넘어서 입체적이고 다층적 여성상을 구현하고 있다고 본다(송주현(2016),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탈주 욕망과 여성성 — 1960년대 장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0, p. 172).

거나 흐려버리지는 못하는 것이다.(171)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자는 나는 가끔 여기에 와서 낮잠을 자는 것이다. 왜 그런지 광순의 이불 속에 들어가 누우면 잠이 잘 오는 것이다.(172)

항상 눈부신 미소를 지은 채 “완전히 생활 능력을 상실한 폐인인”(172) 오빠 문선생을 대신해 노모와 세 조카들을 건사하는 광순은 매춘부인 동시에 구원의 여상이며 진성회로 대표되는 가부장의 윤리를 조롱하는 위치에 자리한다. “나의 대장, 문선생, 장선생, 이렇게 세 사람”으로 구성되어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들끼리 모여 국가 민족과 인류 사회를 위해서 진실하고 성실한 일을 하다가 죽자는”(173) 취지를 가진 진성회는 가부장제 자본주의 윤리를 내세우지만 그 회원인 남성 가부장의 이면은 허위와 무능으로 집약된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낮에는 학교에 나가 지식을 샀고, 밤이면 뒷골목에 있는 자기 ‘오피스’에서 몸을”(179) 파는 여대생-매춘부 광순은 소설에서 “단골손님들 사이에서 가끔 난투극이 벌어지”도록 만드는 “확연히 어떠한 매력”(180), 즉 유혹을 통해 남성의 욕망을 처벌하는 동시에 “그 얼굴에 넘치는 미소”(180)로 오빠 문선생과 서술자를 비롯한 남성들을 돌본다. 소설에서 ‘나’는 광순의 미소에 매혹당하고 그녀 주변의 남성들에게 매질을 당함으로써 무능한 가부장을 대리해 처벌된다고 할 수 있다. 여대생 창녀 광순은 가부장의 위선을 폭로하고 매질하는 동시에 편안한 미소로 매혹하고 돌보는, 다시 말해 유혹하고 처벌하고 돌보는 구강적 모성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유혹하고 처벌하고 돌보는 구강적 모성의 이미지는 『부부』의 처제 정숙, 『아들들』(65-66)의 둘째 형수 고인자 여사를 비롯해 『인간교실』(63)의 남혜경 여사, 『이성연구』(64)의 계숙 등 1960년대에 발표된 여러 장편 소설에서 성적으로 분방하면서도 주위를 돌보고 적극적인 생활력을 갖춘 여성상으로 구현된다. 『부부』는 아내 인숙과 여동생 정숙 자매의 남

성들에 대한 유혹과 처벌, 돌봄과 교정의 서사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은 표면적으로 자유분방한 정숙이 형부인 서술자에게 교감하며 지나치게 엄숙한 언니 인숙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듯하지만 결말에 이르러 정숙이 한박사와 결혼하는 과정에서 그의 표면적 도덕성 아래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타락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동시에 한박사보다 더 윤리적이고 실제적인 설계력을 갖춘 언니 인숙의 사업을 돕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숙 역시 표면적으로는 처녀시절 사모했던 한박사와 연애 관계를 맺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의술을 빌어 사회사업을 확장함으로써 부도덕하고 방종하면서 자신을 윤리적 근본주의자로 몰아 사랑받는 아내의 자리에 묶어두려는 남편을 교정해 부하직원으로 묶어두고 지배하게 되는 구도를 나타낸다. 소설에서 젊음과 발랄함으로 표상되는 정숙은 표면상 언니 인숙의 정결주의를 비웃는 듯하지만 이면에서 실제로 그가 비웃고 조롱하는 대상은 언니와 한박사 사이를 의심하고 아내의 육체를 욕망하면서도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형부인 서술자 ‘나’이다. ‘나’는 아내와 한박사 사이를 의심해 좌충우돌하면서 바람을 피기도 하고 정욕에 좋다는 자라피를 마시는 등 온갖 소동을 저지르는데, 이러한 소동의 목격자로서 “어떤 때는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 같은 것은 상대도 안될 만큼 단수가 높은 언동으로 나를 어리둥절하게도 만드는 등 그 육체나 정신이 마치 건강의 표본같이 싱싱하기만 하던 정숙”(48)은 ‘나’의 불륜과 허위, 타락한 욕망을 때로는 충동이거나 감싸주고 때로는 조롱하고 비판하는 등 처벌과 돌봄의 구강적 모성상을 구현한다. 언니 인숙의 성적 매력으로 가득한 육체와 정숙의 자유로운 젊음은 남성들을 유혹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육체에만 관심을 갖는 남성들의 욕망을 규제하고 조롱함으로써 처벌과 교정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누가 속인대요. 사실인 걸요. 전 형불 존 분으로 알아요, 정말. (중략)
대한민국의 사내라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가정 깡패 아네요. 남자다

은 남자란 연약한 마누라 앞에선 양처럼 순하고 인자해야 돼요. 사회 활동에선 사자처럼 억세구요.»

정숙은 그러한 일장의 남자론을 피력하고 나서,

「아뭏든 형부도 자라피 같은 거 아예 마실 생각 마시고, 언니도 형부 바람피지 않게 해드리고, 잘들 화합해 나가 보세요. 저도 뒤에서 힘껏은 협력해 드릴 테니까요.»(273)

소설은 결말에 이르러 아내 인숙과 처제 정숙이 여성의 몸만을 탐하는 남성의 욕망에 매질을 가하거나 겉으로 도덕적인 척하는 남성의 이중성에 비판과 조롱을 가하는 연대를 통해 자매애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난다. 아내에게 미친 듯 빠졌다고 하면서도 정작 아내의 친구와 바람을 피우는 서술자 ‘나’나, 겉으로는 온화한 도덕과 박애, 교양을 연행하면서도 이면에서는 비서와 바람을 피워 임신을 시키는 한박사 등 모순된 남성의 윤리와 행태에 그들은 규제와 처벌, 유혹과 조롱으로 대응함으로써 남성의 욕망을 교정해간다. 가부장제 사회 속 남성의 윤리적 우위를 조롱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시선에 비판을 가하는 가운데 그들은 유혹적인 매춘부인 동시에 정숙한 아내이며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동시에 자신만의 도덕과 윤리를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돌봄과 유혹이라는 구강적 모성의 이미지는 『아들들』의 둘째 며느리 고인자 여사를 통해서도 구현된다. 『아들들』은 부모에 대한 효와 형제간의 우애, 장자의 권위와 같은 유교 윤리와 질서가, 개인의 자유와 성실을 통한 성공이라는 자본주의의 규범 또는 윤리와 충돌하는 지점에서 유교 윤리를 개인적 정의로 받아들여 “부모 앞에서는 그토록 진정이 넘치고 선량”¹⁹⁾하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건달이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깡패 비슷한”(43) 넷째 아들 중국과, 근검절약과 성실한 노동을 통한 성공이라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받아들여 “돈과 출세에는 눈이

19) 손창섭(1970), 「아들들」, 『손창섭대표작전집』 3, 예문관, p. 43.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일엔 놀랄 만치 민감히 두뇌가 움직이는”(125) 둘째 아들 종갑 간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서로에 대한 폭력을 서사화한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둘째와 넷째 아들 사이를 매개하며 비판하고 교정하는 존재가 둘째 며느리 고인자이다.

가득이나 처녀시절부터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자였다. 말하자면 이러한 생활을 합리화하고 캄플라지하기 위해서 여사가 시작한 것이 일수놀이와 계였던 것이다. 그런데 워낙 반죽이 좋고 사교적이어서 그런지 의외에도 거기에서 생기는 수입이 상당했다. 근래에 와서는 남편의 수입을 훨씬 능가할 정도였던 것이다. (중략) 그러나 그 매력은 유감스럽게도 건전한 것이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유혹적이에요, 자극적인 매력이었다. 더구나 그 눈에 얽은 미소까지 어렸을 때 남자를 능히 뇌살시킬 수 있는 탕녀적인 독기까지 풍기었다.(38)

서사의 초반 종갑의 처 인자는 분방한 처녀시절의 복잡한 과거와 단 하루도 외출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성미에 집안 살림까지 가정부와 여동생 인미에게 맡기고 돌아다니는 등 방탕하고 유혹적인 존재로서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 둘째 아들 종갑과 결혼한 뒤에도 여전히 일수놀이를 빙자해 밤늦게까지 외출해서 남성들과 어울리기를 서슴지 않는다. 막내아들 종수의 눈에 이러한 둘째 형수 인자의 “만성화된 외출증”(38)과 어딘지 모르게 유혹적이고 자극적인 매력을 가진 신비한 눈, 복잡한 과거는 꺼림칙하고 부도덕한 것으로만 비추어진다. 그녀는 60년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요청하는 현숙한 여성, 가정주부의 상에 어그러진 존재로서 타락한 표지를 지닌 것처럼 그려진다. “남편 잘 섬기고 시부모와 시동생들 위할 줄 알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어도 헤프지 않게 참고 아껴가며 알뜰히 살 줄 아는” “누구의 눈에도 어진 아내요, 착한 며느리요, 살가운 형수요, 부지런하고 솜씨 있는

살림꾼”(67)으로 호명되는 현모양처 첫째 며느리와 달리 고인자는 “깔끔하고, 차분하고, 정숙한 맛이란 전혀 없다. 그러니 주부로서는 제로에 가깝다.”(65) 그런데 이처럼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탕녀로 묘사되는 그녀가 오히려 사교적이고 반죽이 좋은 데다가, 남편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후반부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화한다.

여사는 이렇듯 수다스러우면서 몸을 아끼지 않았고 시원스러웠다. 그러나 그 도가 지나쳐서 탈인 것이다.(중략) 이처럼 여사는 먹자 편이요, 비위와 녀살이 좋고 염지도 없다. 그 대신 사람은 무한량 좋다. 웬만한 일엔 노여움이 가지 않고 또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할 줄을 모른다.

반면에 남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도 잘 모른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도 일일이 그런 데는 신경을 쓰지 않는 모양이다.

이러한 고여사는 아무와도 잘 사귀었다.(64-65)

그녀는 부친의 병원비와 생활비 문제를 두고도 구두쇠처럼 철저하게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남편 종갑과 달리 “손이 크다.”(64) 수다스럽지만 시원스럽고 누구에게나 친절할 뿐 아니라 비위와 녀살이 좋아서 남들이 자신을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일 같은 것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자신의 개성을 발휘해 사람들과 잘 사귀는 그녀의 행동은 소설에서 껌껌한 구두쇠 남편 종갑과 투기열에 들뜬 시동생 중국 모두에게 일정한 처벌과 교화로 작용한다. 남편의 경우 그녀의 처벌은 일부터 주부 일을 등한시하고 부부관계를 멀리함으로써 이혼을 유도하고 위자료료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시동생 중국에 대한 처벌은 퇴폐적인 유흥을 가장하되 결코 그와 근친상간 관계를 맺지 않음으로써 그를 부하로 부리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넷째 아들 중국은 자신과 대립하는 둘째 형 종갑의 “아무 사내와나 해롱거리기 좋아하는”(269) 일견 방탕해 보이는 아내 인자를 유혹해 성관

계를 맺음으로써 “어떤 수단으로든 고여사를 손아귀에 넣고서 한덕상사 사장의 딸로서 또는 동사 상무의 마누라로서 최대한 이용해 보자는 심산”(269)에서 사업자금을 얻는 동시에 둘째 형에 대한 복수를 행하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중국의 계획대로 호락호락 넘어오는 형수가 아니었다.”(100) 부모의 집을 파는 문제를 두고 둘째 형과 폭행에 이르는 충돌을 일으킨 끝에 유치장까지 다녀온 그는 둘째 형수 인자가 유혹에 쉽사리 넘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이 지닌 유혹의 힘을 이용해 사업가로서의 수완까지 발휘하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두려움까지 느낀다.

그때부터 중국은 분명히 자기의 패배를 의식했다.

여사를 손아귀에 넣기는 고사하고 모르는 세에 꼼짝없이 여사의 손아귀에 꼭 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중략) 그런 만치 사나운 말 같은 중국을 그래도 달래서 어느 정도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고여사뿐이었다. (중략) 마치 어린애 다루듯 받아 넘기는 것이었다.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몹시 입맛이 쓰면서도 중국은 점점 더 여사에게는 꿈쩍을 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때로는 왜 그런지 두려운 생각마저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271)

누구에게나 웃어대고 유혹적인 눈과 방탕한 언어로 남성들을 유혹하는 고인자 여사의 매력은 도덕적인 가부장인 부친과 큰아들 종철, 막내 아들 종수는 물론 자본과 권력, 지식을 가진 둘째 아들 종갑, 셋째 아들 종삼도 길들이지 못한 폭력배 중국을 길들여 자기 말에 복종하는 부하직원으로 만들 뿐 아니라 그를 마치 어린애 다루듯 희롱하며 유혹적인 힘을 발휘하기에 중국에게 두려운 생각마저 들게 한다. 그녀는 자신을 유혹해 돈을 벌려는 중국의 헛된 투기열을 좌절시킬 뿐 아니라 유혹적인 눈과 말로 그를 자신의 밑에 묶어두고 부하로 부리면서 아이처럼 돌본다. “중국이 자신 입건도 안 되고 유치장에서 무사히 풀려 나오게 된 것

은 나중에 알고 보니 오로지 고여사의 막후 교섭에 의한 결과였던 것이다.”(270) 폭력배 종국을 길들여 돌보는 고인자의 힘은 결말에 이르러 각종 폭행과 강간, 자살과 살인 등으로 아들들이 감옥에 가거나 떠나거나 죽어버려 “갈 데까지 가 버렸으니”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난”(323) 마씨 가문 5형제를 대신해 남겨진 가족들을 돌보고 지도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종수는 여사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때처럼 고여사가 믿음직하고 의지가 되고 고마운 때는 없었다.”(323) 주인공 종수가 인미와 결혼하게 되기까지 막후교섭으로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고인자의 능력이며, 소설은 결말에서 유혹과 처벌, 돌봄이 결합된 구강적 모성의 긍정성을 집약해 보여준다.²⁰⁾ 선량하고 부모에게 지극한 효를 다하는 등 가부장제 윤리를 구현하지만 무력하기만 한 큰아들 종철이 끊임없이 죄의식에 시달리며 끝내는 자살에 이르는 반면, 현모양처 윤리에서 벗어나 남성 유혹하고 알뜰하기보다 손이 큰 둘째 며느리 인자는 가부장제 윤리 따위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이혼도 가볍게 취급하면서 유혹적인 미소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살뜰하고, 이해성 있는 너그러운”(303) 자질을 발휘해 구두쇠 둘째 아들과 폭력배 넷째 아들을 교정하고 모두를 돌본다. 가부장 사회의 윤리에 대한 파괴와 조롱, 매질을 통해 그녀는 유혹적인 동시에 자애로운 선한 돌봄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고 하겠다. 이처럼 손창섭 소설에서 구강적 모성은 모성애와 현숙함, 절제 등 남성 가부장의 윤리와 규제를 넘어 유혹과 방탕, 돌봄과 활발이라는 여성 지배자의 윤리를 부각해 보이는 것이다.

20) 김명임은 『아들들』에서 가족의 회복이 종수라는 남성에게 의해 이루어지기에 여성은 부수적 조력자에 불과하다고 본다(김명임(2017),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 — 불안과 회피에 대하여」, 『반교어문연구』 45, p. 174). 소설의 초점화자이자 주인공이 종수임은 분명하지만 『아들들』의 주제를 가족의 회복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아들들』은 아버지-아들 중심의 가부장제 가족의 해체와 몰락을 서사화하고 있기에, 이런 측면에서 여성 인물들의 역할을 부수적 조력자로 한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4. 결론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손창섭의 소설 속 매저키즘 관계를 분석하고 구강적 모성 표상이 가진 의미를 재고하였다. 들뢰즈에 따르면 매저키스트의 경험은 계약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모든 권리가 주어진 여성(구강적 모성)과 남성(아들) 사이의 연대에 바탕을 둔다. 여기에서 구강적 모성에 의해 매를 맞고 굴욕과 조롱을 당하는 것은 매저키스트 내부에 숨어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이다. 손창섭의 소설에는 동거자 및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가학과 피학의 폭력이 자주 나타난다. 이때 가학과 피학의 폭력은 「유실물」과 「혈서」에서 보듯 쌍방 계약처럼 자동화되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매저키즘적 속성을 드러낸다.

가학과 피학의 계약관계로서 손창섭 소설 속 매저키즘은 피해자의 시점에서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의 부당함을 서술하는 표면적 서사와 함께 이면에서, 현실 자본주의 가부장제 사회 속 약자인 가해자와 강자인 피해자의 역전된 위계를 설정함으로써 그 폭력의 의미를 재고하게 한다. 다시 말해 손창섭 소설에서 매저키즘적 관계는 「피해자」, 「혈서」나 「조건부」, 「미해결의 장」, 『부부』 등에서 보듯 장애인이나 여성과 같은 사회적 하위계층(피지배층)이 지배자가 되어 지식인 남성 등 사회적 상위계층(지배층)의 욕망을 조롱하고 매질을 가하는 방식으로 현실 자본주의 가부장제 사회 질서에 대한 전복과 비판을 드러낸다. 또한 「피해자」와 『부부』 등에서는 현실의 위계를 역전한 매저키즘 관계에서 지배자(약자)가 여성의 정조와 현모양처를 강요하는 현실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윤리와 논리를 과잉 모방함으로써 피해자(강자)를 처벌하는 아이러니한 웃음을 자아낸다. 『부부』에서 아내의 목소리는 현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윤리와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성윤리를 과잉모방한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점잖음이라는 가부장제 성윤리가 ‘창부형의 극치를 타고 난’ 아내에게서 발화됨으로써 아이러니와 유머를 자아내고 비

판적 의미를 갖게 된다. 손창섭은 현실 가부장제 사회의 위계구도를 역전해 현실적 약자인 가해자와 강자인 피해자라는 매저키즘 관계를 서사화함으로써 약자(장애인/여성)의 현실 질서나 가부장제 윤리에 대한 과잉모방의 아이러니와, 그에 기반해 강자(지식인/남성)에 대한 폭력과 교정의 유머를 보여주는 것이다.

손창섭 소설에서는 「유실몽」이나 「미해결의 장」에서 보듯 매춘부로서 남성을 유혹하고 타락한 삶을 즐기는 동시에 가족의 생활을 돌보는 입체적인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여성상은 유혹하는 자궁적 모성과 처벌하는 외디푸스적 모성의 양극단을 오가며 돌봄이라는 제3의 자질을 구현하는 구강적 모성의 이미지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손창섭 소설에서 구강적 모성은 모성애와 현숙함, 절제 등 남성 가부장의 윤리와 규제를 넘어 유혹과 방탕, 돌봄과 활발이라는 여성 지배자의 윤리를 부각한다. 구강적 모성이 유혹하는 동시에 처벌하는 대상은 「잉여인간」이나 60년대 장편소설 『부부』나 『아들들』 등에서 보듯 남성 가부장의 윤리이며 그에 기반한 근대 사회의 혈연과 가족 제도를 비판하고 전복하는 데 손창섭 소설에 구현된 매저키즘의 의미가 자리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자 료】

손창섭(2005), 『손창섭 단편 전집』 1-2, 가람기획.
_____(1970), 『손창섭 대표작 전집』 1-5, 예문관.

【논 저】

- 공종구(2009), 「손창섭 소설의 기원」, 『현대소설연구』 40.
_____(2012), 「<삼부녀>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가족주의」, 『현대소설연구』 50.
김명임(2003), 「손창섭의 『이성연구』 — 체념의 미학과 통속적 기호들」, 『한국학연구』 12.
_____(2017),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 — 불안과 회피에 대하여」, 『반교어문연구』 45.
김주리(2018), 「한국근대소설 속 스위트홈의 욕망과 계모의 표상」, 『구보학보』 18.
김홍진(2014), 「손창섭 소설의 여성 하위주체의 위상」, 『국어문학』 56.
박죽심(2003), 「손창섭의 자전적 성격의 소설에 나타난 의미 고찰」, 『어문논집』 53.
박찬효(2014),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남성의 존재론적 변환과 결혼의 회피/가정의 수호 양상」, 『상허학보』 42.
배경렬(2006), 「손창섭 소설의 특질과 인물 성격」, 『현대문학이론연구』 28.
송주현(2016),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탈주 욕망과 여성성 — 1960년대 장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0.
송하춘 편(2003), 『손창섭 — 모멸과 연민의 이중주』, 새미.
양소진(2006), 「손창섭 소설에서 마조히즘의 의미」, 『비교한국학연구』 14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이수형(2010), 「1950년대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죄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집』 41, 계명대 한국학 연구소.
전성욱(2010), 「전후의 현실과 섹슈얼리티 — 손창섭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17.

정보람(2018), 「1960년대 손창섭 소설의 가족 공동체 연구 — <부부>, <삼부녀>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1.

최강민(1998),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폭력성」, 『어문논집』 26.

홍주영(2007),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부성 비판의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2008), 「손창섭의 <부부>와 <봉술량>에 나타난 매저키즘 연구」, 『현대소설연구』 39.

_____(2015), 「<부부>, <이성연구>를 통해 본 손창섭 장편소설의 여섯 가지 특징과 그 의미」, 『작가세계』 27.

들뢰즈(1996), 『매저키즘』, 이강훈 역, 인간사랑.

원고 접수일: 2018년 12월 31일

심사 완료일: 2019년 1월 26일

게재 확정일: 2019년 2월 8일

ABSTRACT

Masochism and Women in Son Chang-seop's Novels

Kim, Jue-lee*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meaning of masochism and representation of oral maternity in Son Chang-seop's novels. Deleuze said that masochism is a contract in which a man entrusts all his rights to an oral maternity who comes and goes between a tempting 'uterine maternity' and a punishing 'Oedipus maternity'. In masochism, an oral maternity forces and laughs at the father's image hid in a masochist. As a contract between an punisher and a sufferer, which is contracted by the sufferer's desire, masochism shows the reversed relations in which that a social weaker (like the handicapped and women) becomes a punisher and a social strong (like the intellectual and men) becomes a sufferer in 「*Husband and wife*」, 「*Written in blood*」 and 「*A sufferer*」. The rule of patriarchy like a sense of virtue and an ideology of the wise mother and good wife derives ironic humor with a woman punisher's over-imitating. A woman punisher shows the image of an oral maternity who tempts, punishes and cares in novels at 1960s like 「*Husband and wife*」, 「*Sons*」, 「*A class on human*」, 「*A study about the other sex*」 etc.. In these novels the oral maternity who is sexual, kind and active destroys, laughs at and revises the morality of patriarchal society with temptation and care-giving.

* Professor, College of Humanities, Hanbat National University